

광주시, 도심 문화축제 ‘스트릿컬처 페스타’ 연다

내일부터 예술극장·5·18광장 등서 스트리트댄스·공연·전시 등 다채 국내외 댄서 1290명 1대1 배틀 “체류형 관광·지역 경제 활성화”

광주광역시시는 5일부터 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광주 대표 여름 축제 ‘2025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세계적 스트리트댄서들

이 참여하는 댄스 경연 ‘배틀라인업10’ △글로벌 컨벤션 행사 ‘렛츠플로피 3.0’ △다제잉 공연, 길거리 농구, 플리마켓 등 시민참여형 광장 문화행사로 구성된다.

대표 프로그램인 ‘배틀라인업10’은 5일부터 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국내외 스트리트 댄서 1290명이 참가해 힙합·왁킹·팝핑·락킹·오픈스타일 등 5개 종목에서 1대1 배틀로 박진감 넘치는 경연을 펼친다.

6일국립아시아문화전당예술극장에서는 400여명의 아동·청소년이 참가해 2대

2 팀전 형식으로 댄스 경쟁을 벌이는 ‘키즈&유스 배틀’이 펼쳐진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5·18민주광장에서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 39개 댄스팀의 팀 퍼포먼스 경연이 이어진다.

1대1 배틀 심사위원으로는 프랑스 힙합의 대부 조셉고, 미국 비보이써밋 우승자 주니어부갈루, 프랑스 저스트데봇 락킹 우승자 피락 등이 참여하며, 사회는 MC 두락이 맡는다. 팀 퍼포먼스 경연 심사에는 기린, 윙, 호진, 아가넨 등 유명 스

트릿댄서들이 참여해 축하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렛츠플로피 3.0’은 6~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밴드 글렌체크, 싱어송라이터 윤마치, 조지 등 의 라이브 공연과 함께 브랜드 전시, 패션·푸드 콘텐츠, 주제별 토크 세션이 함께 진행된다.

이밖에 5·18민주광장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는 길거리 농구,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열려 도심 전역이 활력 넘치는

축제의 장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축제와 함께 ‘6월 여행가는 달’ 숙박 할인과 ‘2025 광주방문의 해’ 캠페인도 병행해 체류형 관광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름 대표축제”라며 “젊은 세대의 감성과 열정이 광주 도심을 물들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6월6일 현충일 오전 10시 ‘목념 사이렌’

광주시, 1분간 평탄음 송출

광주광역시시는 제70회 현충일인 6월 6일 오전 10시 정각에 광주 전역에 목념사 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과 함께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민방위 경보용 사이렌 장비 55대를 활용해 평탄음 방식으로 1분간 사

이렌을 송출할 계획이다.

이부호안전정책관은 “현충일에 울리는 사이렌은 적의 공습 등 비상상황과는 무관한 목념 유도 신호로, 시민들은 놀라지 말고 사이렌이 울리는 시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목념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6일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청·접수

전라남도가 6월부터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도민 예우를 위한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청·접수에 나선다.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그동안 생계지원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도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6만 원씩 지급해 보다 폭넓은 예우가 가능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생계지원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총 433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60여 명이다.

전남도는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현수막, 포스터,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7월1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지급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소방, 소방관 심리 치유 ‘원데이 클래스’ 운영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들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

‘원데이 클래스’는 소방안전본부가 추진하는 심지 지원 사업 ‘찾아가는 상담실’의 하나로, 소방공무원과 현장보조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심신안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심박변이도(HRV; Heart Rate Variability)스트레

스검사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나만의 향수 제작 체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돕는다. 또 마음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원데이 클래스는 지난달 30일 북부소방서를 시작으로 광주지역 각 소방기관에서 6월까지 9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오는 13일 수완문화체육센터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13일 수완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노인인권 증진 유공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어르신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문화공연 △지역사회 관계기관 홍보캠페인 △유공자 표창 △노인인권 옹호 선포식 등으로 구성되며,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표창에는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

한 시민과 공무원 등 10명에게 시장상이 수여되며, 노인학대 예방에 힘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광주경찰청장의 감사장이 전달된다.

광주시는 노인학대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04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2011년부터 학대피해노인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노인에게는 △상담 △복지 △법률 △의료 △보호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또 매년 200회 이상 노인 인권 교육과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한호



강기정(왼쪽)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일 광주시청 시민홀과 전남도청 윤선도를 북카페에서 시도민들과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공



전남도, 448억 투입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 제공

개인 욕구·특성 고려 돌봄 서비스 사회참여 확대·가족돌봄 지원 강화

전라남도가 448억원을 투입해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발달장애인 수는 2023년 1만3815명에서 2024년 1만4015명, 2025년 4월 기준 1만41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자해·공격 등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80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181억 원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122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37억 원 △발달장애인 보호자 입원 등 긴급 돌봄서비스 10억 원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10억 원 △발달장애아 부모·가족 지원 등 8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 행동(자해·공격)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장애 정도와 서비스 지원 필요도에 따라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등 3가지 유형의 맞춤형 1대1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남도가 직접 공모해 추진 중인 24시간 개별 서비스는 현재 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1개소를 추가 공모 중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각각 월 132시간, 월 66 시간씩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 등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지원센터도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도 확대된다. 미술, 음악, 행동, 심리 등 영역

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장애 미등록 아동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고 있다.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보호자가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 휴식, 부모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도는 앞으로도 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돌봄으로 지쳐 있는 가족에게 휴식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과수·시설원에 농가 해충포획기 지원

끈끈이 트랩 등 5억 규모

전라남도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토마토빨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의 출현 밀도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과수, 시설원예작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해충포획기 지원은 해충을 유인해 포획

하고 해충 밀도를 낮추는 방제 효과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4월 여수를 비롯한 17개 시군에 총사업비 5억 원 규모로 노지 387ha, 시설 3100여 동을 방제할 수 있는 해충포획 끈끈이 트랩을 1차로 지원했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동일 규모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재소, 과수, 화훼 등 도내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으로, 농협 조합원은 보조 70%, 자부담 30%다. 비조합원은 보조 50%다. 추가 수요조사 기간은 일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농가가 해충을 조기에 방제해 피해를 줄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